정당공천 폐지, 의원들의 생각은?

광주·전남운동본부 지역 국회의원들에 공개 질의

찬·반 여부 등 8일까지 답변 요청…결과 주목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공천 폐지 의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로 해 그 답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운동 광주·전남본부는 22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 전원에게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23일 오전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질의서에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 ▲그 이유 ▲기초지방선거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 방안 등 4개 항이 담겨 있다.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다음달 8일까지 4개 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광주·전남본부 김기홍 사무국장은 "정당 공천 폐지는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 그들에게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살릴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어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본부는 또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특히 중앙정치권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 의원들까지 정치부패의 온상과도 같은 정당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왜곡된 인식은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방 역시 자생력을 상실한 채 중앙 정치권에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이제라도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대 분장 셀라야 지지자 광대 분장을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누엘 셀라야 온두라스 전 대통령이 머무는 테구시갈파 주재 브라질 대사관을 온두라스 경찰이 에워싼 가운데 21일(현지시간) 한 셀라야 지지자가 /연합뉴스

"비회원에 소식지 보내지 마세요"

선관위, 정찬용씨에 사전선거운동 주의 공문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2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인재육성아카데미 측에 '공명선거 협조문'을 조만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사)인재육성아카데미 측이 정 전 수석을 홍보하는 소식지를 비회원 등에게 보내 공직선거법(254조 사전선거운동)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면 선거법에 따라 조치가 불가피하니 주의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가 매월 이메일로 전하는 소식지를 통해 정 전 수석을 홍보하는 내용을 220명에게 보냈으며, 언론인이 포함된 수신자 일부는 이 단체의 회원이 아니다. 앞서 선관위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사)인재육성아카데미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이 단체가 발송한 소식지에는 정 전 수석이 모 중앙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과 사진이 담겼으며, 특히 "'대통령님, 아닙니다'할 수 있는 권한", "노 전 대통령이 항명하는 거냐고 묻자 '사표 내겠다'"는 내용이 부각돼 있다.

/김형호기자 khh@

강박원 의장 조례안 2건 발의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민주·광산1)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강 의장은 제183회 임시회에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과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친환경농업 조례안은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 친환경 농자재, 시설설치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친환경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해 직거래를 확대하고 학교 급식·단체 급식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英紙 "블레어, EU 초대 대통령 가능성"

사르코지, 내달 EU 특별정상회담 추진

獨 메르켈 총리 반대 등 장애 극복해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유럽연합(EU)의 초대 대통령에 앉히기 위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특별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이 22일 보도했다.

데일리메일은 영국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블레어 전 총리를 EU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해 다음달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다음달 이 같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EU 순회의장국을 맞고 있는 스웨덴 역시 가까운 시일 안에 EU의 초대 대통령이 지명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르코지가 블레어 지지로 뜻을 굳혔다 하더라도, EU 내에서 프랑스와 함께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지닌 독일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블레어에게 그리 녹록한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이 유로존 가입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블레어가 EU 초대 대통령에 오르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또한 최근 유럽의회와 더불어 영국 보수야당까지 반(反) 블레어 캠페인에 가세하는 등 블레어가 실제로 EU의 최고 수장 자리에 오르기까지에는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지방채 이자 정부 지원해 달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協, 건의안 제출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22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제11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열어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자치단체마다 이자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채 상환이자에 대해 정부지원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수범(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요구와 감세정책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정부의 상환이자 지원이 필요하나 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원금 및 이자액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가 없다"며 건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정부정책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주민세가 올해 8천억원 이상 줄어들고 정부 추경으로 지방교부세가 2조2천억원 감소했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1조6천억원 정도 증가해 지방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채 상환이자를 보전해 줘야 하며, 올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이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소급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이 안건을 논의하고 나서 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에 대한 정부지원 건의안'을 확정하고 이를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한편, 올해 발행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총 규모는 6조8천239억원으로, 연 4.5%의 이자율로 추산하면 3천70억원 정도의 상환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光銀, 시금고 3년 더

광주은행이 오는 2010년부터 2102년까지 3년간 광주시 금고를 다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올해 말로 시 금고 계약이 끝나는 광주은행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 금고를 더 맡도록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냈으며, 오는 28일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 금고 지정과 관련한 조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배제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금융기관과는 한 차례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지난 2006년 국민은행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광주은행은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녹차, 신종플루 증식 억제" 日 대학 연구진

녹차의 주요 성분인 카테킨이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녹차가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작용 메커니즘을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플루 등 A형 바이러스는 증식에 불가결한 폴리메라제라는 효소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의 RNA라는 물질을 절단해 새로운 바이러스 재료로 사용한다.

도쿠시마 문리대학 연구진은 A형 바이러스부터 이 효소를 추출, 녹차에 많은 5종류의 카테킨을 하나씩 첨가한 결과 2종류의 카테킨에서 효소의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카테킨은 장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녹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항바이러스 효과는 낮다.

연구진은 "이들 성분의 구조를 조금 변형시켜 장에서 분해되지 않게 하거나 인체에 직접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인 신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